

국학 설립의 의의와 신라유학의 발전*

황 의 동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 I. ‘천년 신라’의 의미
- II. 국학 설립과 교학적 의의
- III. 신라유학의 검토
 1. 신라유학의 3巨儒-강수, 설총, 최치원
 2. 기타 신라유학의 탐색
- IV. 맺는 말

※ 이 논문은 신라국학 13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 발표한 것임.(2012. 5. 22, 경주교육문화회관, 성균관)

<논문 요약>

이 논문은 신라 국학 설립의 의의를 조명하고, 신라 유학의 발전상을 논구한 것이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발전이 부진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삼국통일을 주도하였다. 금년은 신라 국학이 설립된지 1330년을 맞는다. 신라 국학의 설립은 682년으로 삼국 가운데 가장 늦었다. 국학이 설립되는데 있어 강수, 설총, 그리고 김춘추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학의 교육과정은 상품, 중품, 하품의 3품으로 되어 있었고, 오경이 중심이 되고 『문선』과 『산학』도 가르쳤다. 특히 『논어』와 『효경』은 공통 필수과목으로 강조되었는데, 이를 통해 충효윤리가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88년에는 독서삼품과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인재의 능력을 3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는 제도였다. 신라의 국학은 유교교육의 산실로서 유교적 인재 양성과 유교윤리의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신라의 유교를 대표하는 유학자로는 강수, 설총, 최치원을 들 수 있다. 강수는 문장가로서 외교문서 작성에 공이 커서 신라의 통일에 기여하였다. 강수는 어려서 불교는 世外教라 하여 좇지 않고 世間的 유교를 선택하였다. 설총은 원효의 아들로 吏讀文을 가지고 유교경전을 강의하였다. 그는 『花王誡』를 써서 임금에게 忠諫을 권장하였는데, 최초로 동국 18현에 종사되었다. 최치원은 통일신라기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그곳에서 공부하고 벼슬까지 하고 돌아왔다. 그는 유. 불. 도에 회통하였고 『계원필경』을 남겼는데, 동국 18현으로 문묘에 종사되었다. 최치원은 그가 쓴 「鸞郎碑序文」에서 신라 고유사상으로서의 風流道(風月道)의 존재를 밝히고, 이것은 유. 불. 도 3교 사상을 포함한 玄妙之道라 하였다.

신라의 유교사상은 원광이 만든 ‘화랑세속5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교적 요소도 있고 불교적 요소도 없지 않지만, 신라가 처

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世俗戒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화랑들은 명산대천을 유람하며 한편 도의를 연마하고 다른 한편 歌樂으로서 樂을 즐겼으니, 예악을 겸비한 균형 잡힌 인간상을 길렀던 것이다. 또 「壬申誓記石」에는 두 화랑이 맹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무겸전의 화랑상을 담고 있다. 金后稷의 일화에서는 忠諫의 전통을 배울 수 있고, 「黃草嶺碑」에는 『논어』의 修己安民의 정치철학이 담겨있으며, 忠談師의 「安民歌」에는 공자의 正名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때, 신라의 삼국통일은 물론 신라 천년의 역사에서 국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또 세간교로서의 유교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국학, 강수, 설총, 최치원, 화랑세속오계, 풍류도, 난랑비서문, 임신서기석.

I. ‘천년 신라’의 의미

한 나라가 천년의 역사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동서양 역사를 통해서도 흔치 않는 일이다. 신라는 천년의 자랑스런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자취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오늘날까지 민족의 생존을 도모해 온 것은 실로 장한 일이다. 북으로는 중국, 동으로는 왜의 사이에서 수많은 외침을 겪으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것은 자랑스런 일이다. 비록 남북통일이라는 과제가 아직 우리의 현안으로 주어져 있지만, 선진국의 일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러한 오늘의 한국이 존재하는 데는 먼저 신라 천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물론 고구려 중심의 삼국통일의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의 신라 통일은 역사적으로 다행한 일이다. 해방 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 분단을 고착화했다는 일부 진보 진영의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 또한 신라의 삼국통일과 마찬가지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통일신라 이후 고려 - 조선 - 대한민국으로 이어 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비록 그 과정에서의 아쉬움과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경주가 그 천년 신라의 古都로서 오늘날까지 ‘문화수도’로서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음은 자랑스롭다.

그러면 천년 신라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 신라는 당시 삼국 가운데 지리적으로도 불리하였고, 군사적, 문화적으로도 가장 열악하여 발전이 늦었던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고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애국심 있는 백성을 教養한 문화적 힘과 교육에 있었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정신과 가치

관, 의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한 것은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신전력의 측면에서 패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신라의 통일에 있어 주축이 되었던 花郎은 유교적 애국심과 불교적 호국신앙으로 무장된 선비요 무사였으며, 통일의 대업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실천했던 진흥왕, 무열왕, 문무왕 등도 유교적 忠義와 불교적 호국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 지도자들이었다.

이러한 천년 신라의 통일과 중흥에 있어 그 기반이 되었던 이념적 기반이 바로 고유사상인 風流道를 바탕으로 한 불교요 유교였다. 그리고 유교가 정치와 교육 그리고 윤리라는 현실적 사명을 지녔다고 볼 때, 國學은 그 요람이요 산실이었다.

신라의 국립대학인 국학이 설립 된지 1330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한국의 대학사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는 서양의 옥스퍼드, 캠브리를 일컬어 대학의 역사를 말하지만, 우리도 그에 못지 않는 자랑스런 대학사를 지니고 있음에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구려 太學에 설립된 것을 효시로 삼는다면 1640년(372년)의 역사가 되고, 여말 성균관으로 계산하더라도 614년(1398년)의 역사를 갖는다. 대학은 지성의 산실이고 문화의 보고이므로 대학사는 곧 知性史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본고의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 국학 설립의 의의를 생각해 보고, 신라유학의 전개 양상과 그 특징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자료의 한계로 심층 연구가 어려운 점이 있고,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였음을 부연한다.

II. 國學 설립과 敎學的 의의

國學은 신라 유교의 아성으로¹⁾ 관리의 양성을 목적으로²⁾ 한 것이었

1) 이기백, 「한국 유학의 정착 과정」, 『한국사상의 심층 연구』, 우석, 1982, 177쪽.

2) 이기백, 위의 글, 183쪽.

다. 통일신라 이전(진덕여왕 5년)에도 국학이 있었지만,³⁾ 그 후 신문왕 2년(682년)에 더욱 정비하여 禮部 산하에 국립대학인 국학을 세우고 卿 1인을 두어 관리하였다.⁴⁾ 이것이 신라 국학의 설립이니 지금부터 1330년 전이 된다.

그런데 이미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년)에 국립대학인 太學이 설립되었으니, 신라의 국학 설립은 삼국통일 후인 682년으로 고구려보다 310년이 뒤떨어졌다. 이는 신라가 그만큼 당시 문화 수용이 늦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景德王(742~764)때에는 國學의 명칭을 太學監으로 고쳤다가, 惠恭王(765~779)때에는 다시 國學으로 환원하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국학과 태학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金春秋는 眞德王 2년(648년)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당의 국학에 가서 釋奠의례와 경전강론을 참관한 적이 있는데⁵⁾, 이후 국학의 설립에 당시 정치적 실력자였던 그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했으리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신라 국학의 설치는 김춘추 같은 왕권세력과 六頭品의 협력에 의한 작품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⁶⁾ 그리고 아마도 당시대를 살았던 强首와 薛聰은 국학의 설립에 가장 공이 많은 인물로 추정해도 좋을 듯 싶다.⁷⁾

682년 국학이 설립된 후 聖德王 16년(717년)에는 왕자 金守忠이 당나라 사신으로 가서 文宣王 孔子와 10哲, 72弟子의 초상을 가져와 태학에 두었으니,⁸⁾ 이로써 文廟儀禮의 제도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학에서는 당나라에 유학을 보내 국제적인 학문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성덕왕 27년(728년)에 金嗣宗을 당나라에 사신으로 보내는

3)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50쪽.

4) 『三國史記』, 卷第98, 「新羅本紀」, 제8, 神文王 2년 條.

5) 위의 책, 卷第5, 「新羅本紀」, 眞德王 2年 條.

6) 이기백, 위의 글, 177쪽.

7) 이기백, 위의 글, 177쪽.

8)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聖德王 16年 條.

기회에 신라의 자제들을 당나라 국학에 입학 할 수 있도록 청하여 허락을 받았는데,⁹⁾ 이로부터 많은 유학생들이 당나라 국학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특히 崔致遠은 당나라 국학에 유학하고 그곳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당나라의 관료로 일하다가 귀국하여, 당나라의 수준 높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신라의 하대에 이르러 당에 유학하는 학생의 수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국학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¹⁰⁾

국학의 체계는 국학의 책임자인 卿 1명, 교수를 담당하는 博士, 助教가 약간 명이 있었고, 그 밖에 大舍와 史가 각 2명이 있었다.¹¹⁾

또 학과 내용은 『禮記』, 『論語』, 『周易』, 『孝經』, 『春秋左氏傳』, 『毛詩』, 『算學』, 『尙書』, 『文選』 등을 가르쳤으며, 三品으로 나누어 교육하였는데, 『論語』와 『孝經』은 공통 필수과목으로 중시되었다.¹²⁾ 이를 통해서 볼 때 국학의 교육과정은 五經이 중심이 되고, 『文選』을 통해 한문의 기초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어』와 『효경』을 필수과목으로 중시한 것은 유교가 지닌 도덕적 가치관의 함양과 실천에 목적이 있다. 『논어』는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으로 仁을 중심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忠, 孝, 禮, 信, 義 등 유교적 도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효경』은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한 경전이라고 볼 때, 두 경전을 공통 필수과목으로 설정한 의도는 국가윤리로서의 忠과 가정윤리로서의 孝가 중심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도덕인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원성왕 4년(788년)에는 讀書三品科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인재의 역량을 평가하는 3단계의 평가제도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上

9) 위의 책, 聖德王 27年 條.

10) 이기백, 위의 글, 179쪽.

11) 『三國史記』, 卷第38, 「新羅本紀」, 雜志, 職官上.

12) 위의 책, 卷第10, 『新羅本紀』, 第10, 元聖王 4年 條.

品은 『春秋左氏傳』, 『禮記』, 『文選』을 읽고 능히 그 뜻에 통달하고 아울러 『論語』, 『孝經』에 밝은 자요, 中品은 『曲禮』, 『論語』, 『孝經』을 읽은 자요, 下品은 『曲禮』, 『孝經』을 읽은 자로 삼았다. 이와는 별도로 5經, 3史, 諸子百家의 글을 아울러 능통한 자는 등급을 뛰어 넘어 발탁하여 임용하기도 하였다.¹³⁾ 이렇게 볼 때, 독서삼품과 설치 이전에는 弓術이나 화랑의 천거로 인재를 등용하였으나 이후에는 학술성적으로 선발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라의 국학에는 算學博士와 助教 1명이 算學書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는 국학이 유교의 경전이 중심이 되면서도 실용교육을 겸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文選』은 한문의 기초 소양교육이라면, 算學은 천문, 역법, 건축, 축성, 일상 경제생활에 필요한 실용교육의 기초과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학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은 12등급(大舍) 이하 관등이 없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하위의 관료들도 국학에서 학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학생의 나이는 15세부터 30세까지였고, 수학 연한은 9년을 기한으로 하였다. 학생의 자질이 부족한 자는 그만두게 하였고, 재능은 있는데 아직 미숙한 자는 비록 9년이 넘더라도 국학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런데 국학의 위상이 매우 높아 통일신라시대에는 국왕이 국학에 직접 행차하여 박사 이하의 교수직을 담당한 국학의 관료에게 경전으로 강의하게 하기도 했고, 직접 왕이 청강을 하기도 하였다.¹⁴⁾

이렇게 볼 때, 국학의 사회정치적 기능은 和白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귀족정치에서가 아니라, 국왕 중심의 행정기구에서 국학 출신의 유학자들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그러므로 유교는 전체적인 관료정치와 표리를 이루고 성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본거지가 바로 국학이었던 셈이다.¹⁵⁾

13) 위의 책, 卷第38, 雜誌, 「職官 上」.

14) 위의 책, 卷第9, 「新羅本紀」, 惠恭王 元年 條. 卷第11, 「新羅本紀」, 景文王 3年 條

Ⅲ. 신라유학의 검토

1. 신라유학의 3巨儒 - 强首, 薛聰, 崔致遠

신라의 유학은 漢唐風의 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학에 통달하고 역사에 밝으며(通經明史), 시나 문장에 능함(詞章)을 특징으로 삼는다.¹⁶⁾ 신라의 유학은 정치나 교육 그리고 유학자들의 일부 저술속에서 간간히 찾을 수 있다. 본격적인 유학의 체계나 전문적인 유학사상을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신라는 ‘風流道’라는 고유사상을 기반으로 儒, 佛, 道가 조화된 사상풍토를 가지고 있었다. 유학자도 불교에 관심이 없지 않았고 불교인도 유학에 대한 교양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상적 토양은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에서의 유학은 유학자만의 전유물은 아니었고 임금과 신하가 공유한 측면이 많다. 불교가 국가적 신앙으로 중시되었지만 유교는 정치라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 더욱이 신라는 안보상으로 위기였고 삼국 가운데 가장 후진국이었던 현실에서 유교적 경제의 기능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신라의 유교적 자취는 여러 자료에서 발굴되지만, 신라유교를 선도한 대표적 인물은 강수, 설총, 최치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먼저 이들을 중심으로 신라유교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强首(?~692)는 신라 중원경(충주) 사람으로 스승으로부터 『孝經』, 『曲禮』, 『爾雅』, 『文選』등을 배웠는데, 문장에 뛰어나 외교문서 작성에 큰 공을 세웠다 한다.¹⁷⁾ 强首가 어려서부터 스스로 글을 읽을 줄 알고 의리를 밝게 통하므로, 그 아버지는 강수에게 묻기를, “너는 불법을 배우겠느냐 유학을 배우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소자가 어리석습니

15) 이기백, 「한국 유학의 정착과정」, 『한국사상의 심층 연구』, 우석, 1982, 179쪽.

16) 현상운 지음, 이형성 교주, 『현상운의 조선유학사』, 심산, 2010, 34쪽.

17) 『三國史記』, 卷第46, 「列傳」, 第6, 强首 條.

다마는, 듣건대 불법은 세속을 떠난 世外教라 하니, 우둔한 제가 어찌 불법을 배우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 사람이므로 儒者의 道를 배우겠습니다.” 하였고, 이에 부친은 “너 좋아하는 대로 공부하라”고 전해진다.¹⁸⁾ 이처럼 강수는 불교를 世外教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유학을 선택해 유학자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는 강수가 불교는 治心の 교이고, 유교는 治世의 교이며, 도교는 신선사상으로 무병하고 장수하는 治身의 교라고 보는 것이다.¹⁹⁾ 고려 성종 때 儒臣 崔承老의 상소중에 “來世를 위한 것은 불교요, 오늘날 治國하는 것은 유교다”²⁰⁾ 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강수가 얼마나 한학에 조예가 깊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태종무열왕이 즉위하였을 때 당나라의 사신이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 해독하기 어려운 곳이 있으므로 왕이 강수를 불러 물으니, 그는 왕 앞에서 서슴지 않고 그것을 설명하였다. 왕은 기뻐하며 경탄하여 서로 늦게 알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했다.²¹⁾

또한 강수는 유학자로서 아내에 대한 신의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강수는 원래 釜谷의 治匠 집 딸과 정을 통하고 있었으나, 그의 부모는 보다 신분이 나은 집의 여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강수는 再娶가 옳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바가 아니지만, 道를 배우고 행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부끄러운 바입니다. 일찍이 들으니 糟糠의 아내는 버리지 아니하고, 가난할 때 사귀 친구는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천한 아내를 차마 버릴 수 없습니다.²²⁾

18) 위의 책, 같은 글.

19) 유승국, 『한국사상의 연원과 역사적 전망』, 유교문화연구소, 2008, 230쪽.

20) 『高麗史節要』, 卷2, 成宗2年, 「崔承老上疏」, “行釋教者 修身之本 行儒教者 理國之源 修身是來生之資 治國乃今日之務.”

21) 『三國史記』, 卷第46, 「列傳」, 强首 條.

22) 위의 책, 卷第46, 「列傳」, 强首 條.

이처럼 그는 糟糠之妻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였으니,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보다도 도덕을 더 중시한 것은 분명 유교적 가치관을 제시한 것이다. 강수는 유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문장가로서 그 명성이 높아 외교문서 작성에 큰 공을 세웠는데, 문무왕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강수는 문장을 자기 임무로 알았고, 능숙한 서한으로써 나의 뜻을 중국, 고구려, 백제에 잘 전달하였기 때문에 화친을 맺는 공을 이루었다.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것은 신라인의武功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수의 문장으로 당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여 당나라 군대의 지원을 받은 것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는가.²³⁾

문무왕은 강수가 주변국과의 화친에도 기여했고, 또 당나라의 지원을 받는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수의 외교문서 작성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중요한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강수는 통일신라 초기 신라 유교의 始端을 연 인물로 도와 문장을 겸한 巨儒였고, 이러한 위상으로 보건대 아마도 강수는 설총과 함께 국학의 창건과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薛聰(655~?)²⁴⁾은 신라 高僧 元曉의 아들로, 吏讀文을 가지고 경전을 해석하였고, 왕에게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花王誡를 썼다.²⁵⁾ 그는 文廟에 배향된 東國 18賢 가운데 첫 번째 인물로, 고려 현종 13년(1022년) 문묘에 從祀되고, ‘弘儒侯’라는 謚號가 주어졌다. 처음에는 절에 들어가 佛家書를 읽다가 이윽고 유학으로 돌아와 經術과 文章으로 鬱然히 儒宗이 되었다. 그가 승려 출신으로 유학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인 花王誡는 임금의 失德을 간언하는 신하의 도리

23) 위의 책, 같은 글

24) 현상운 지음, 이형성 교주, 『현상운의 조선유학사』, 심산, 2010, 35쪽, 주7)참조.

25) 『三國史記』, 卷第46, 「列傳」, 第6, 薛聰 條.

를 말한 것이다. 그는 신문왕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하명하자, 擬人化한 이야기로 花王(모란꽃)에게 아름다운 여인인 장미와 곤궁한 군자인 白頭翁(할미꽃)이 찾아왔을 때, 임금이 아름다운 여인(장미)에게 마음이 기울어지자, 백두옹이 “무릇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친근히 하며, 바르고 곧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음이 드뭅니다.”라고 하여, 임금이 여색에 빠져 군자를 소홀히 하는 失德을 간언하였다. 그밖에도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와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가 전한다.

崔致遠(857~?)의 字는 弘雲, 海雲, 海夫이고, 號는 孤雲, 儒仙이라 하였다. 경문왕 8년(868년) 12살의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18세에 당나라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宣州 溧水縣尉가 되었고, 承務部 侍御史 內供奉에 올라 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마침 산동성 일대에 黃巢族의 반란이 일어나자 四川節度使 高駘의 從事官으로 발탁되어 이 때 지은 글이 저 유명한 討黃巢檄이다. 당나라 친우 顧雲은 최치원에게 송별시를 써주었는데, “12살에 바다를 건너와 그 문장은 중국을 감동시켰도다”라고 그를 칭송하였다.²⁶⁾

헌강왕 10년(884년) 28세 때에 조국 신라에 돌아와 侍讀 兼 翰林學士 守兵部侍郎 知瑞書監事가 되었으나, 국정의 문란을 개탄하고 외직을 청하여 太山郡, 富城郡 등 여러 고을의 태수를 지냈다. 벼슬을 하다가 진성여왕 8년(894년) 時務10條疏를 올려 현실개혁의 의지를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벼슬을 버리고 전국을 유랑하다 해인사에 들어가 여생을 마쳤다 한다.

그는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桂苑筆耕』 20권을 남겼는데, 중국의 『四庫全書』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중국인명사전에도 수록되어 있다. 『新唐書』 「藝文志」에는 『四六集』 1권과 『桂苑筆耕』 20권이 전한다고 한다. 그밖에도 「崇福寺碑」, 「眞鑑國師碑」, 「智證大師寂照塔碑銘」, 「無染國師白月葆光塔碑銘」 등이 있다.

26) 위의 책, 卷第46, 「列傳」, 第6, 崔致遠 條.

그는 시와 문장에 뛰어나 神異한 경지에 이르렀고, 儒, 佛, 道 3교에 능통해 각 종파의 이질적인 교리와 논리를 통일 종합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우리 학계에서는 그를 가리켜 ‘東方文學의 開山祖’, ‘東國文宗’으로 추앙하고 있다.²⁷⁾ 최치원은 유학만 전공한 醇儒는 아니지만, 그 스스로 ‘儒門末學’²⁸⁾, ‘腐儒’²⁹⁾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유학자로 자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은 신라의 고유사상으로 風流道가 존재했음을 알려주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는 「鸞郎碑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풍류도의 유래, 성격,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風流라 한다. 이 敎가 설치된 연원이 仙史에 자세히 갖추어 있으니, 이는 실로 三敎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접하면 生이 교화되어진다. 또한 들어가서는 가정에 효도를 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을 하니 이는 魯나라 공자의 뜻이고, 無爲의 일에 처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周나라 노자의 宗旨이고, 모든 악은 짓지 않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니 乾國 석가의 교화이다.³⁰⁾

그는 당시 신라에 고유사상으로서의 풍류도가 존재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風月道라고도 하는데³¹⁾, 玄妙之道로서 여기에 접하면 이 교화된다고 그 신묘한 공능을 묘사하고 있다. 최치원에 의하면, 그 당시 풍류도의 역사적 연원이 仙史에 자세히 갖추어 있다고 하여, 문헌적 근거와 역사적 유래가 실재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27) 최영성, 「최치원 철학사상연구서설」, 『한국철학사상가연구』, 철학과 현실사, 2002, 21쪽.

28) 『三國史記』, 卷第46, 「列傳」, 崔致遠 條.

29) 「聖柱寺郎慧和尚碑」, 『朝鮮金石總覽』, 상, 74쪽.

30)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眞興王 37年, “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曰風流 設敎之源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31) 『三國遺事』, 卷3, 「彌勒仙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풍류도에 관한 문헌이 전무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풍류도에는 이미 유교적, 불교적, 도가적 요소가 이미 내포해 있다는 점이다. 외래사상으로서의 유교, 불교, 도가사상이 들어와 풍류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사상인 풍류도 자체 속에 이미 儒佛仙 三敎사상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류도의 정신은 이질적인 사상과 문화를 잘 조화하고 수용하는 신라인의 문화적 수용성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또한 최치원은 『眞鑑禪師碑銘』에서 “진리가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으므로, 이방인이 따로 없다. 이런 까닭으로 동방사람들이 유교를 하고 불교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³²⁾ 라고 하였다. 道는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누구에게나 道가 있으며, 따라서 이방인도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東人들이 불교도 할 수 있고 유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주체적으로 東人의식을 자각한 표현으로 문화적 개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道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道不遠人)’는 말은 『중용』의 ‘道不遠人’³³⁾을 인용한 것으로, “사람이 道를 넓힐 수 있지, 道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³⁴⁾는 공자의 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고려 현종 11년(1020년) 동국 18현으로 문묘에 종사되었고, ‘文昌侯’라는 시호를 받았다.

2. 기타 신라유학의 탐색

신라의 유교적 자취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화랑도사상에 나타난 유학정신을 살펴보기로 하자. 본래 명칭은 風月道, 風流道이고, 花郎道, 國仙道는 제도상의 이름이요 형식적인 이름이다.³⁵⁾ 본래 이름을 『삼국

32) 『眞鑑禪師碑銘』, “夫道不遠人 人無異國 是以 東人之子 爲釋爲儒 必也.”

33) 『中庸』, “子曰 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

34) 『論語』, 「衛靈公」, “人能弘道 非道弘人.”

사기』에서는 風流道라 했고³⁶⁾, 『삼국유사』에서는 風月道라 했다.³⁷⁾

화랑도가 정식으로 형성된 것은 진흥왕 37년(576년)이고, 전국의 명산 대천을 유람하며 심신을 수양하였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서로 道義로써 연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歌樂으로써 즐거워하였다.³⁸⁾ 화랑도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조직인데, 그 활동 내용은 도의의 연마와 가락을 통한 정서함양이었다. 전자가 예의교육 내지 도덕교육으로 方正性을 함양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노래와 춤을 통한 圓融性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는 유교가 禮樂의 견비와 조화를 이상으로 삼는 것과 일치한다. 『禮記』에 의하면 “樂이 禮보다 지나치면 방탕으로 흐르기 쉽고, 禮가 樂보다 지나치면 사람 사이가 떨어진다”³⁹⁾고 하였다. 화랑도는 禮樂이 잘 조화된 전인적 인간상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花郎 世俗五戒를 중심으로 유학사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600년에 圓光이 隋나라에서 귀국하고 청도 加悉寺에 머물러 있을 때, 沙梁部に 사는 貴山과 箒項이 원광에게 평생 지켜야 할 계명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자,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의 이른바 世俗五戒⁴⁰⁾를 주었다.

貴山과 箒項이 圓光을 찾아가서 “저희는 俗士로서 우매하여 이는 바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한 말씀 주셔서 일생의 戒名을 삼게 하소서” 하니, 원광이 그들에게 “불교에 菩薩戒가 있어 그 조항들이 열 가지가 있지만, 그대들은 남의 신하가 된 몸이므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세속의 다섯 가지 戒가 있으니,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을 섬기되 충성으로 할 것, 둘째, 아버지를 섬기되 효도로써 할 것, 셋째, 벗을 사귀에 믿음에 있을 것, 넷째, 전쟁에 임해

35) 김충렬, 『동양사상산고』, 범학, 1979, 273쪽.

36)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37年 條.

37) 『三國遺事』, 卷3, 「彌勒仙花」

38)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37年,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39) 『禮記』, 「樂記」, “樂勝則流 禮勝則離.”

40) 『海東高僧傳』, 「圓光」.

서 물러서지 말 것, 다섯째, 산 것을 죽임에 가림이 있으라 하고, 이를 실천하여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였다.⁴¹⁾

원광은 대대로 가문의 전통이 연면하게 이어온 사람으로, 도량이 크며 문장을 좋아하였으며, 도가와 유학을 섭렵했고, 諸子書와 四書を 두루 연구했던 스님이었다.⁴²⁾ 이 세속오계는 貴山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고, 貴산의 전사를 계기로 화랑오계로 보편화되었다.⁴³⁾

화랑 세속오계가 유교적이냐 불교적이냐 하는 것은 의미 없고, 유불도 삼교 조화사상의 바탕위에 시대적인 요구인 戰訓을 가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⁴⁾ 事君以忠은 국가윤리로서 신하의 도리를 忠으로 규정한 것이다. 事親以孝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孝로 규정한 것이다. 물론 불교에서도 충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충효의 중시와 강조는 유교가 훨씬 적극적이고 강하다. 交友以信은 친우와 친우의 도리를 신의로 규정한 것인데, 이 또한 『맹자』의 五倫속에 朋友有信과 다를 바 없다.⁴⁵⁾ 臨戰無退는 세속오계 가운데 주목할 만한 계율이다. 일반적으로 싸움에 나아가 물러서지 말라는 것은 세속계로서 적의하다고 볼 수 없다. 싸움이란 전쟁을 의미하고, 나아가 죽든지 아니면 이기고 돌아오라는 말인데, 이러한 계율을 세속오계 속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는 당시 신라가 처한 안보상의 위기에서 신라 청년들에게 강인한 용맹을 요구한 것이라 하겠다.⁴⁶⁾ 끝으로 殺生有擇은 살아 있는 것을 죽이되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또한 불교의 五戒가 ‘不殺生’인 점을 고려하면, 원광 나름의

41) 『三國史記』, 卷第45, 「列傳」, 貴山 條.

42) 『三國遺事』, 卷4, 「義解篇」, 圓光西學, “家世海東 祖習綿遠 而神器恢廓 愛染篇章 校獵玄儒 討讎子史.”

43) 김충렬, 위의 책, 279쪽.

44) 김충렬, 위의 책, 295쪽.

45) 『孟子』, 「滕文公」, 상.

46) 김충렬, 위의 책, 286쪽.

창의성과 주체적 수용의 정신이 잘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가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에 대해, 원광은 죽이되 대상, 장소, 때, 양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이름 그대로 세속의 계율로 적의하게 변형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殺生도 전쟁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면 이러한 해석을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때, 화랑 세속오계는 불교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교적 해석이 가능하고, 특히 『맹자』의 五倫체계를 바탕으로 신라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1940년 5월 경주 石文寺址에서 발견된 ‘壬申誓記石’⁴⁷⁾을 유교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로 하자. ‘임신서기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느님 앞에 맹세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忠道를 執持하여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약 이 일(忠道)을 잃으면 하느님께 큰 죄를 얻을 것을 맹세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우면 모름지기 忠道를 실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 따로 앞서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세하였으니, 『詩經』, 『尙書』, 『禮記』, 『春秋左氏傳』을 차례로 3년에 습득하기를 맹세하였다.⁴⁸⁾

이 ‘壬申誓記石’을 쓴 것은 진평왕 34년(612년)으로 추정되는데⁴⁹⁾, 화랑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은 忠道를 잘 잡고 지녀서 過失이 없기를 맹세하고, 또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어지러우면 忠道를 실행하기를 맹세하고 있다. 여기서 ‘忠道’라는 말은 새로운 말인데, 忠은 盡己로서 인간 내면의 본심을 다 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다짐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

47)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45쪽.

48) 「壬申誓記石」,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天前書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無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大亂世 可容行誓之 又別先辛未年七月二十二日大誓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49) 유승국, 『도원철학산고』, 유교문화연구소, 2010, 285쪽. 이병도 박사도 그 시기를 신라 통일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음.(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47쪽)

게 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는 것이다. 전자는 修己의 성실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국가적 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족윤리인 孝보다 국가윤리인 忠을 더욱 중시한 것은, 당시 신라가 처한 안보상의 위기의식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유교 경전을 3년 동안에 걸쳐 읽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 ‘임신서기석’은 한국 古金石 사료중에서도 治者의 관점이 아닌, 신라 청년들의 순수하고 자율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⁵⁰⁾

당시 신라가 이렇게 국가적 충을 강조하게 된 것은 金庾信의 일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진평왕 때 신라가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할 때, 당시 젊은 장수로 전장에 나갔던 金庾信은 主將의 한 사람인 아버지 앞에 나아가 “제가 평생 충성과 효도를 스스로 기약하였으니, 전투에 임해서 용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듣건대 ‘옷깃을 들어 올리면 갖옷이 바르게 되고. 벼리를 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 하니, 제가 그 벼리와 옷깃이 되고자 합니다.”⁵¹⁾라고 하여, 나라를 위해 충을 다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반면 忠과 함께 효도의 윤리도 신라사회에 보편화되고 있음을 다음 효녀 知恩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知恩은 나이 32살이 되도록 시집가지 않고 품을 팔거나 구걸하여 홀로 된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가난함을 이기지 못해 부잣집에 자신을 팔아 종이 되기로 하고 쌀 10여 섬을 얻어다 밥을 지어 드렸다. 그 어머니가 딸에게 “지난 번에는 음식이 거칠었으나 달았는데, 지금은 비록 좋지만 맛이 전과 같지 않고 간장과 심장을 칼날로 찌르는 것 같으니 이 어찌된 연유이냐?”하고 묻자, 딸이 사실을 말씀드리고서, 어머니와 딸이 함께 통곡하며 울었다. 이 사실을 화랑인 孝宗郎이 알고 곡식을 知恩의 집에 보내주고 주인에게 몸값을 갚아 종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⁵²⁾

50) 유승국, 『도원철학산고』, 285쪽.

51)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金庾信 上.

52) 위의 책, 孝女知恩, 條.

이와 같이 유교윤리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忠孝는 신라사회에 일반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가 처한 안보상의 처지로 국가적 忠이 더욱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신라유교에서 보이는 王道사상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신라에서는 일찍이 6부 촌장들이 모여 덕망 있는 자를 왕으로 추대하였는데, 그가 바로 朴赫居世이다.⁵³⁾ 이는 堯, 舜, 禹가 禪讓하는 형식과도 같은 것이다.⁵⁴⁾ 長者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덕망있는 인물에게 왕위가 승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和尓제도로 이어진다. 和尓은 국가의 중대사를 협의하는 일종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만장 일치제도를 그 특징으로 하였다.⁵⁵⁾ 이는 현대의 다수결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의사형성 과정의 민주성을 말해주는 것인데,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인도정신이 내재해 있다.

또한 忠의 전통에서 유교의 정신을 볼 수 있다. 金后稷은 眞平王이 사냥을 매우 좋아하여 정사를 그르친다는 우려에서 諫言을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자, 죽게 되면 임금이 사냥하는 길목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하였다. 어느 날 진평왕이 다시 사냥을 하러 가는 길에 그 곁을 지나게 되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 결국 사냥을 다시 하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⁵⁶⁾ 신하의 忠이란 단순히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부정을 바르게 돕는데 있다. 그러므로 忠의 전통은 유가 정치사상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였다. 이는 “임금은 신하를 禮로써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忠으로써 섬겨야 한다.”⁵⁷⁾는 공자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또한 종교적 풍습에서 행해온 殉葬의 풍습이 유교가 들어오면서 금지되었다. 신라는 智證王 3년에 순장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전왕이 죽자

53) 위의 책, 卷第1, 「新羅本紀」, 第1.

54) 『孟子』, 「萬章章」, 上.

55) 『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新羅條, “事必與衆議 號和尓 一人異則罷.”

56) 『三國史記』, 卷第45, 「列傳」, 第5, 金后稷 條.

57) 『論語』, 「八佾」,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남녀 각각 5명이 순장되었기 때문이다.⁵⁸⁾ 유교는 인도주의요 인간생명을 고귀하게 여긴다. 종교적 풍습인 순장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금지시킨 것은 유교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또 진흥왕 순수비 가운데 黃草嶺碑의 비문 가운데는 古神道의 요소와 함께 유교적 요소가 들어있다.

순수한 풍습이 배풀어지지 못하면 참된 도리가 어긋나게 되고, 훌륭한 교화가 퍼지지 못하면 사특한 것이 다투어 일어난다. 따라서 제왕이 통치이념을 세우는 것은 모두 자기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케 하고자 아니함이 없다.⁵⁹⁾

진흥왕이 제시한 통치이념 내지 통치철학인 ‘修己以安百姓’은 『논어』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를 원용한 것이다.⁶⁰⁾ 진정한 유교는 修己와 治人, 內聖과 外王을 겸비한 內聖外王之道이어야 하는 것이다.

향가의 하나인 ‘安民歌’에서 유교사상이 잘 드러난다. 경덕왕이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원리를 노래로 지어보라는 분부에 따라 忠談師가 지은 것인데,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백성은 백성 구실 다 할 양이면 나라는 태평에 떡감으리라”⁶¹⁾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논어』의 ‘君君臣臣父父子子’의 正名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⁶²⁾ 안민가 속에 正名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문무왕은 신라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임금인데, 다음 그의 유언에서 保國安民의 왕도정신을 볼 수 있다.

나는 백성들에게 과세를 가볍게 하고 徭役을 덜게 하여 백성들의 살림을 족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 하였다. …… 내가 임종한 뒤에 10일이 되

58)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

59) 「黃草嶺碑文」, “純風不扇 則世道乖眞 玄化不敷 則邪爲交競 是以帝王建號 莫不修己以安百姓.”

60) 『論語』, 「憲問」

61) 『三國遺事』, 卷第2, 「紀異」, 第2, 忠談師 條.

62) 『論語』, 「顏淵」

면, 곧 궁문 밖에 뜰에서 불교의식에 따라 불로 화장하고 상례의 제도는 검약을 쫓으라. 築城과 州縣의 課稅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헤아려 폐하도록 하고, 의식과 격식중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이를 편리하게 고쳐라.⁶³⁾

이는 『맹자』의 왕도정치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과세를 가볍게 하고, 徭役을 덜어주고, 불편한 법과 제도를 고쳐 백성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라는 것은 왕도정치의 중요한 내용이다.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마하지 못하는 정치가 仁政이요 王道정치라면, 문무왕이야 말로 죽음에 임해서까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144년 逸聖王은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요, 식량은 백성의 하늘이다.”⁶⁴⁾ 라고 선언하고, 각 주군에 제방을 완벽하게 수리하고 농토를 널리 개척하도록 명령하였다. 먹는 것, 민생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은 맹자의 이른바 王道之始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史記』에서 역이기(酈食其)가 “임금된 자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王者以民爲天 而民以食爲天)⁶⁵⁾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제3대 유리왕은 겨울에 나라 안을 巡行하다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된 노파를 보고, “내가 보잘 것 없는 몸으로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부양하지 못해 노인과 어린 것들을 이렇게 극심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죄이다” 라고 말하고, 옷을 벗어 덮어주고 음식을 주어 먹게 하였으며, 이에 관리에게 명령하여 곳곳에 있는 홀아비, 과부, 고아, 무의탁노인 및 늙고 병들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문하고 양식을 지급하게 했다고 한다.⁶⁶⁾ 이러한 유리왕의 어진 마음, 차마 못하는 마음이야 말로 王者의 심법이며, 여기서 仁政 즉 王道가 실현되는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신라유교와 六頭品の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역사학

63) 『三國史記』, 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下, 21年 條.

64) 위의 책, 卷第1, 「新羅本紀」, 逸聖尼師今, 11年 春2月, “農者政本 食惟民天.”

65) 『三國列傳』, 第37, 「酈生. 陸賈列傳」.

66) 『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 儒理尼師今 5年 冬11月 條.

자 이기백은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 강수, 설총, 최치원이 모두 六頭品 출신이고, 유교에 가장 매력을 느꼈던 사회적 신분층이 육두품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⁶⁷⁾ 신라 통일의 유교는 한 마디로 육두품의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기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은 모두 육두품이었고, 유교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한 인문들이나 교수를 담당한 인문들도 그러했으며, 여기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육두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다. 또 하대에 당으로 유교를 배우러 유학을 한 학생들도 육두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 육두품의 유학자들은 현세에 있어서의 도덕을 중요시 하였다. 그들은 도덕은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러한 사상은 선천적인 골품에 의한 특권을 기득권으로 향유하는 眞骨에 대한 사상적 반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도덕적 정치이념으로써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가 되거나 혹은 행정적인 관직을 차지함으로써 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가고 있었다고 보았다.⁶⁸⁾

요컨대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 나당연합의 국제외교 등에서 우세하였을 뿐 아니라, 정신적, 사상적 구심력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월등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정신적 기반에는 원효와 의상 같은 한국불교 최고봉의 창조적 지성이 있었으며, 강수와 설총같은 유학의 대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라 통일 전후기를 주도한 진흥왕, 문무왕 같은 위대한 통치철학을 가졌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⁶⁹⁾

그러므로 신라 文教의 융성에 대해서는 당나라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효성왕 즉위 초에 당 현종이 성덕왕의 訃音을 듣고, 형도(邢彛)를 보내 조문하고 신왕을 책봉하였는데, 이 때 형도에게 말하기를, “신라는 君子國이라 불리는 만큼 글을 아는 것이 자못 중국과 유사하다. 그대가

67) 이기백, 「한국 유학의 정착과정」, 『한국사상의 심층 연구』, 우석, 1982, 173~174쪽.

68) 이기백, 위의 글, 187~188쪽.

69) 유승국, 『한국사상의 연원과 전망』, 유교문화연구소, 2008, 191쪽.

惇儒인 까닭에 사절로 보내니, 그들에게 經義를 설명하여 대국의 유교가 번성함을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당 현종이 신라를 君子國이라고 부르고, 신라의 유교적 수준이 중국과 비슷하다고 한 것은 당시 신라의 유교 수준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 주는 것이다.

IV. 맺는 말

이제까지 신라의 국립대학인 국학 설립의 의의와 신라유교의 발전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신라의 국학 설립은 삼국 중에 가장 늦어 682년에 세워졌는데 1330년 전의 일이다. 국학이 설립되는데 있어 강수와 설총 그리고 김춘추는 이 사업의 중심인물로 추정된다. 국학의 교육과정은 3품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五經이 중심이 되고 文選과 算學도 가르쳤다. 특히 『효경』과 『논어』를 필수과목으로 한 것은, 윤리의 교육 특히 충효 도덕의 강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788년에 讀書三品科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인재의 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평가제도였다. 국학은 신라유교의 산실이요 거점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윤리의 제고와 유교적 인재의 양성이 이루어졌다.

신라의 유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이가 강수, 설총, 최치원이다. 강수는 문장가라서 외교문서 작성에 공이 컸다. 그는 어려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함에 불교를 世外教라 하여 거부하고, 世間的 유교를 선택해 유학자의 길을 나섰다. 설총은 원효의 아들로 불교에서 출발하여 유교로 돌아온 인물이다. 그는 吏讀文을 가지고 유교 경전을 해석하였고, 「花王誡」를 써서 忠諫의 君道를 擬人化하여 설명하였다. 문묘에 종사된 東國 18賢의 첫 번째 인물이다.

최치원은 대표적인 渡唐유학생으로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신라 최고의 지성이다. 儒佛道 三敎에 능통하였는데, 그 스스로는 儒者로 자처하였다. 그가 쓴 鸞郎碑序文은 한국 전통사상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그는 당시 신라에 고유사상으로서의 風流道(風月道)가 존재하였

음을 언급하였다. 풍류도는 유불도 사상을 그 자체속에 내포하고 있는 玄妙之道로서, 여기에 접촉하면 群生이 감화되고 교화된다 하였다. 또 최치원은 「眞鑑禪師碑文」에서 주체적 東人의식을 발휘하고 있는데, 東國 18賢으로 추앙되었다.

그 밖에도 신라의 유교적 자취는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다. 화랑도는 서로 도의를 연마하고 가락으로 즐거워했다는 데서 유교적 禮樂의 교육 과정을 읽을 수 있고, 禮樂兼全의 花郎像을 볼 수 있다.

또한 화랑 세속오계는 『맹자』의 五倫체계를 바탕으로 圓光 나름의 독창과 당시 신라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불교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忠, 孝, 信, 勇, 仁의 유교적 가치와 윤리가 보인다. 또한 ‘壬申誓記石’에서는 수기와 치인, 內聖과 外王이 조화된 유교정신을 볼 수 있다. 박혁거세를 왕으로 선출한데서 有德者를 왕으로 뽑는 유교 정치의 전통을 볼 수 있고, 만장일치의 和白제도에서 왕도의 정신을 보여준다. 또 金后稷이 忠諫을 통해 진평왕의 사냥하는 버릇을 고쳤다는 일화에서 유교적 忠諫을 볼 수 있고, 진흥왕 순수비인 黃草嶺碑에서 『논어』의 修己安民이 인용되고 있다. 또 忠談師의 「安民歌」에는 ‘君君臣臣父父子子’의 正名사상이 보이고, 문무왕의 유언에서 보국안민의 정신과 유교적 民本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천년 신라의 국학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신라유교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다. 신라문화의 특징은 무엇보다 風流道라는 고유사상을 바탕으로 儒佛仙을 조화롭게 수용한데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화랑도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하였다. 개방된 문화적 수용성은 신라의 힘이 되었고, 천년 신라를 유지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유교는 정치, 교육, 윤리의 중핵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학은 그 중심이 되었다. 이제 천년 신라의 역사적 자궁으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흥을 준비하자.

<참고 문헌>

- 『三國史記』, 『高麗史節要』, 『三國遺事』, 『中庸』, 『論語』, 『禮記』, 『孟子』
『唐書』, 『海東高僧傳』, 『三國列傳』, 「壬申誓記石」, 「眞鑑禪師碑銘」
「黃草嶺碑文」
김충렬, 『동양사상산고』, 범학, 1979.
유승국, 『도원철학산고』, 유교문화연구소, 2010.
유승국, 『한국사상의 연원과 역사적 전망』, 유교문화연구소, 2008.
이기백, 「한국유학의 정착과정」, 『한국사상의 심층 연구』, 우석, 1982.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최영성, 「최치원 철학사상연구서설」, 『한국철학사상가연구』, 철학과 현실사,
2002.
현상윤 지음, 이형성 교주, 『현상윤의 조선유학사』, 심산, 2010.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udy of Culture and Heritage of the Country and the Development of Confucianism in Silla
/ Eui Dong Hwang

This thesis is one that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udy of culture and heritage of the country and the development of Confucianism in Silla in remembrance of the 13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udy of culture and heritage of the country of Silla. It was in the year 682 when the study of culture and heritage of the country was established in Silla, which was the latest among Three Kingdoms. The study of culture and heritage of the country aimed at educating Confucian persons of talent and promoting Confucian ethics. Chun-chu Kim, Gang Su, and Seol Chong played important roles in establishing the study of culture and heritage of the country, and pupils were educated in three grades. The education course was centered on the Five Books of Confucianism, and Moon-seon (an anthology) and San-hak (a study of arithmetic) were also taught. On the other hand,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the Book of Filial Duty were corequisites, which proved that the ethical education of filial piety was emphasized. Among the Confucian scholars of Silla, Gang Su, Seol Chong, and Chi-won Choi are the most representative ones. Gang Su was excellent at writing, so h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writing diplomatic documents; on the other hand, Seol Chong lectured on Confucian classics with prose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Chi-won Choi studied in Dang and achieved a reputation, and he was proficient in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Chi-won Choi revealed, in his preface to Nallang (husband of Chinese legendary bird) tombstone, that there was Pung-ryu-do (a way of enjoying oneself tastefully and elegantly) as our indigenous thought, and asserted that thought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re involved in

Pung-ryu-do. Moreover, the five Buddhist commandments for secular life of Hwarang, which was said to have been written by Won Gwang, has a little bit of Buddhist overtones; however, it is similar to the five duties of Confucianism, and it lays emphasis on ethics such as fidelity, filial love, braveness, benevolence, and trust.

Key words: study of culture and heritage of the country, Gang Su(강수), Seol Chong(설총), Chi-won Choi(최치원), a way of enjoying oneself tastefully and elegantly, the five Buddhist commandments for secular life of Hwarang, preface to Nallang tombstone, oath-written stone of the year Im-shin.